

고구려 역사·문화를 활용한 서울 마케팅 방안

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시도와 목적

- 국가적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
 - 중국은 1980년대부터 고구려의 중국사 귀속을 추진하였으며, 그 결과 학술적 성과만도 이미 저서 200여권과 논문 수천 편에 이르고 있음.
 - 2002년부터는 천문학적 예산투입과 함께 ‘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(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)’(약칭 동북공정)이라는 5개년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 왜곡을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함.
 - ‘고구려는 한국사가 아닌 중국사’, ‘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’ 등이 중국 주장의 핵심이며, 급기야 그 도가 지나쳐 한반도 북부(현 북한영역)의 고구려 역사까지도 모두 중국사로 보겠다고 선언하고 있음.
- 고구려사 왜곡의 목적 : 되살아난 중화사상(中華思想)의 망령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왜곡 의도
 -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의도는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는데, 이 중 다음의 두 가지가 가장 가능성 높은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음.
 - 첫째,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적 의도
 -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조선족의 코리안드림 열풍이 거세지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탈북자들이 대거 조선족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이어지자 중국은 동북지역(만주)의 정체성 구축을 위해 고구려 및 발해 등 한국 고대사의 중국사 귀속을 추진함.
 - 둘째, 영토분쟁 대비와 북한지역 연고권 주장을 위한 사전 포석
 - 북한정권 붕괴시 혼란방지 등을 이유로 주변 열강들이 한반도에 개

입할 소지가 크며, 이때 중국으로서는 역사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사전에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 주장하고 있는 것임.

고구려사 왜곡의 내용과 한국 고대사로서의 진실

- 중국은 위와 같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바,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 내용과 한국 고대사로서의 진실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.
-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건국영토의 문제
 - 중국학자들은 고구려 종족이 염제(炎帝), 전옥고양씨(顓頊高陽氏), 고이(高夷)의 후예이거나, 상인(商人)의 한 지파라고 주장하지만, 이는 중국의 전설 속에 전해지는 인물을 내세워 이들을 고구려의 선조라 하는 것으로써 터무니없는 주장임.
 - 『제왕운기』(帝王韻紀) 같은 사서(史書)에는 신라, 고구려, 옥저,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후예임을 명시하고 있으며, 중국의 사서에 고구려사를 이민족(異民族)의 역사로 기술함.
 - 영토 문제도 중국학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『삼국지』 <위지동이전>을 보면, 현토군은 식민지 군현이라기보다는 흥기(興起)하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음.
- 조공책봉의 문제
 -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 중앙왕조와 조공책봉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지만, 조공과 책봉은 고대로부터 중국이 중외관계(中外關係)의 한 유형으로 지속시켜 온 외교형태였을 뿐임.
 - 고구려 역사 705년 동안 몽골지역을 포괄하는 중국에서는 35개의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졌으며 이들 중 24개 국가는 50년도 못돼 멸망하

였고, 86%가 넘는 30개 국가는 100년을 버티지 못하였음.

- 장구한 705년의 고구려가 100년, 200년은 고사하고 50년을 버티는 것도 힘에 부쳐하던 당시 중국 왕조에 종속되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.

○ 고구려의 수·당과의 전쟁

- 중국은 수·당과 고구려의 전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통일전쟁으로 왜곡하고 있으나, 이는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고구려와 중국 양대 강국간, 그리고 북방이나 남방의 중소국가들이 연합하여 벌인 고대 동북아의 국제 대전이었음.
- 고구려와의 전쟁 결과로 당시 중국의 중앙왕조인 수나라가 멸망하였는데 이를 두고 지방 할거정권에 대한 중앙왕조의 통일전쟁이라 할 수는 없음.

○ 고구려 왕조의 계승성 문제

- 중국학자들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성이 왕씨(王氏)로 고구려 왕위를 계승하였던 고씨(高氏)와는 혈연적으로 단절된다 하여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부인하지만,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한족과 북방민족이 번갈아 중원을 차지하였던 중국의 왕조는 그 전체가 계승성이 없게 됨.
- 발해나 고려는 고구려 계승을 대내외에 천명한 국가로서, 특히 궁예는 국명을 후고구려(後高句麗)라 하여 고구려 계승을 공표했고, 이를 다시 고려가 이어받고 있음은 상식임.

○ 문화적 전승의 문제

- 중국은 고구려 문화가 한문화(漢文化)를 그 주체로 삼았다고 하지만, 고구려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서역의 미술과 문화 또한 적극 수용하여 국제적인 보편성을 띠는 동시에 고구려만의 수준 높고 다양한 문

화와 독자성을 뚜렷하게 확립하였음.

- 수많은 고분벽화에 나타난 종교사상, 과학기술, 천하관 등 문화적 주요 요소들이 고구려 문화의 높은 수준과 독자성을 증언하고 있음.
- 고구려 말기의 고분들에까지도 천정에 황룡(黃龍)이 등장하는데, 이는 고구려가 중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이를 따르기보다 고구려 자신이 천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신념을 문화적으로 표현한 것임.
- 고구려인이 사용한 온돌은 현재까지 한민족에게만 전승되며, 고구려의 무덤쓰기인 돌칸 흙무덤은 백제, 신라, 가야와 같고 중국과는 전혀 다른 계통임.
- 고구려 고국원왕 무덤의 발방아 하는 모습은 동아시아에서 오직 우리 민족만이 하는 풍속으로 한족과 만족은 이를 알지도 못하였음.

고구려에 대한 한민족의 자부심과 고구려 역사·문화 활용의 필요성

- 한민족(韓民族)의 고대사로서 고구려는 우리 민족에게 다음과 같은 자부심과 역사적 교훈을 심어주고 있음.
- 첫째, 고구려는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지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도 중국을 능가하며 705년 동안 고대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강대국으로서의 역사를 지녔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함.
- 둘째, 대륙을 호령하던 상무정신(尙武精神) 외에도 뛰어난 문명국가로서 우리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며, 세계화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외 지향적인 국제교류의 정신을 발현하게 함.
- 셋째, 자체문화의 발전은 물론 외부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한 고구려의 문화적 개방성은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한국이 어떠한 문화국가론(文化國家論)을 지향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큼.

- 이렇듯 소중한 민족사이기에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·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,
 - 첫째, 고구려 등 한민족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
 - 둘째,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통한 고구려사의 한민족 계승 대외천명과 이를 계기로 한 고구려 역사·문화의 정비 등을 들 수 있음.
 - 그러나 무엇보다도, 셋째,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고구려의 역사·문화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방안이며, 이의 구체적 실천 대안으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문화·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.
 - 귀중한 문화유산일수록 되도록 많은 국민과 시민이 찾고 활용하여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때, 그리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임.
- 서울은 고구려 역사·문화 활용의 적지(適地)로, 이하에서는 아차산 고구려 유적을 활용한 서울 마케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.
 - 서울과 인근의 한강유역은 조선조 600년뿐만 아니라 500년의 한성백제시대를 이끈 한민족의 대표적인 역사공간임.
 - 특히 서울의 아차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가장 많은 고구려 유적이 분포하는 곳임.
 -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더해 서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세계도시(world city)로서 고구려 유적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국 만주의 집안시나 북한의 평양에 비해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문화·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쟁 이점이 매우 높음.

서울시 고구려 유적의 문화·관광자원화와 마케팅 활용 방안

○ 고구려 유적의 발굴과 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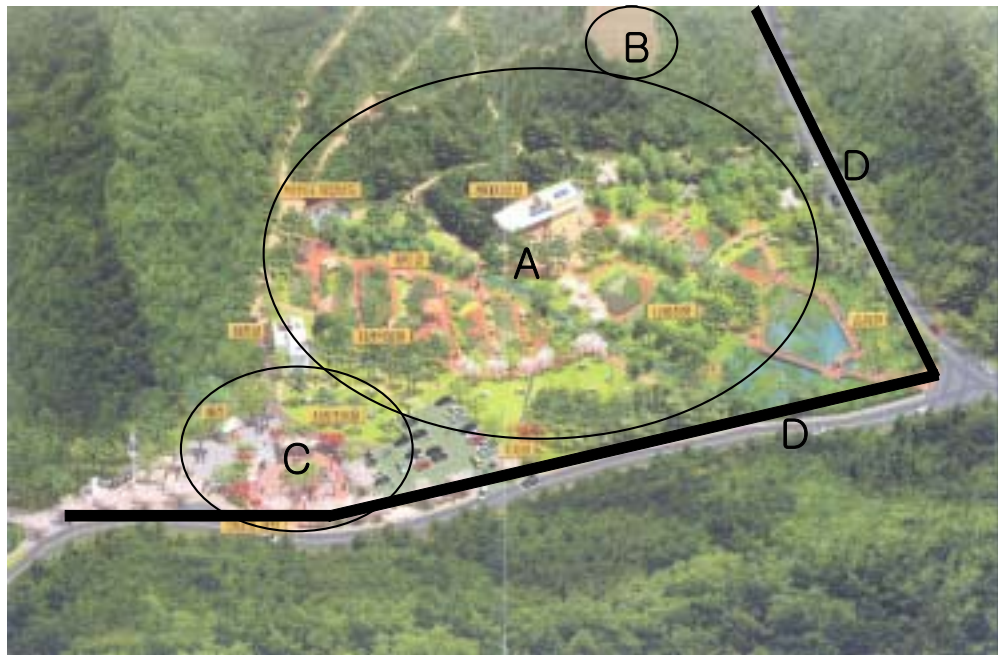
- 아차산 일대 보루군을 발굴·복원하고, 현재의 등산로를 중심으로 ‘고구려 역사 탐방로’를 조성하고 철저한 관리 속에 이를 개방하여 문화·관광자원으로 활용함.

○ 서울의 문화·역사 관광 루트 개발

- 서울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수많은 역사가 교차하였던 ‘한민족의 역사공간’임.
- 아차산 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문화자원을 서울의 다른 역사·문화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의 하나로 자리 매김함.
- 일례로 서울시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‘한성백제박물관’을 고구려 테마파크, 역사 탐방로, 민속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함.

○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

- 광진구의 아차산 생태공원 부지 7천여 평과, 생태공원에서 출발하는 아차산 등산로 주변의 가용한 소규모 필지들을 활용하여 고구려 테마파크로 조성함.



[그림 1] 아차산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 방안

- 생태공원 부지 중 중앙부(그림 1의 A부분)는 전성기 고구려의 영토모양으로 조성하고, 테니스코트(B부분)에는 장수왕릉(장군총) 형태의 고구려 박물관, 주차장 및 광장부근(C부분)에는 편의시설 및 광개토대왕비 실측 모형을 건립함.
- 현재의 생태공원 주위는 고구려의 축성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구려 성벽을 조성함.(D부분)
- 생태공원에서 출발하는 등산로변의 소규모 필지들을 따라서 역사시대별로 고구려 유적들을 모형으로 조성하고, 소규모의 고구려 벽화공원과 조각공원 등을 마련함.

○ 고구려 민속촌 조성

- 고구려인들의 의식주(衣食住) 등 생활문화를 복원, 수학여행객이나 외래 관광객이 숙박하며 고구려인의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고구려 민속촌을 건립함.

- 민속촌 조성에는 고구려 생활문화와 예술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필요한 바, 북한 및 만주의 고분벽화들을 귀중한 고증 자료로 활용함.

○ 고구려 문화축제의 개발

- 고구려의 국중대회(國中大會)인 동맹(東盟)을 재현하여 고구려 축제로 승화시킴.
- 동맹을 현대적 의미로 재현하여 시민과 시장이 함께 아차산에 모여 국가와 서울의 발전, 시민의 안녕을 하늘에 빌고, 지역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함.
- 이러한 축제는 서울시민의 화합축진뿐만 아니라 서울 마케팅과 홍보 방안으로 적합함.

○ 고구려 역사·문화 관련 상품 개발

- 고구려 벽화의 다양한 인물들과 이야기 등을 캐릭터로 고안하여 서울 홍보용 문화·관광 상품으로 활용함.
- 장수왕 후손들의 족보를 이용, 고구려 왕족의 이야기를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넷게임 등으로 상품화함.
- 고구려와 수·당간의 전쟁이나 나·당 연합군과의 전쟁도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같은 방식으로 상품화하도록 함.

이종규 ·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마케팅연구센터장

jglee@sdi.re.kr

김광선 ·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

kskim@sdi.re.kr